

“광주 가전산업 위기를 기회로”

광주시·협력업체 ‘스마트 에어 가전’ 육성 체질 개선
삼성전자, 이달부터 프리미엄급 첨단 가전 본격 생산

“삼성가전 라인 해외이전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3년 전부터 진행되어왔습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의 자금 회수 움직임 때문에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근 다케이산업 회장은 1일 광주 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가전 협력업체 지원 상생협의회’ 출범회의에서 무겁게 발언을 열었다. 삼성이 지난 2010년 냉장고·세탁기, 청소기(2013년), 냉장고 생산라인(2016년) 이전을 단행하거나 추진하는 바람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가 최근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 중 10곳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영업이익률이 11.1%에서 2014년 8.2%로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2011년 520억원에서 2014년 416억원으로 20% 가량 추락했고, 매출액도 2011년 6104억원에서 2014년 5203억원 떨어지는 등 연평균 5%씩 감소했다. 앞선 데 달전 격으로 삼성전자 냉장고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이 가시화하면 협력업체 생산량이 평균 10~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가전 해외이전의 파장과 여진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가 최근 “저가 제품 생산 위주인 광주사업장을 프리미엄 가전제품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존 생산라인을 추가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어서 지역 업체의 경영난을 예고한 셈이다. 이런 기류를 감지한 지역 업체에서는 ‘활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삼성가전 해외 이전파장을 계기로 취약한 지역의 산업체질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기회에 광주 가전산업 전반을 리모델링,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광주시가 추진키로 한 ‘스마트 에어 가전 산업 육성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예산 35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른바 ‘공기(Air) 순환 가전제품’의 분야에 냉난방은 물론 청정·살균 기능을 가진 제품까지 포괄, 생산 영역을 다각화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모터 등을 제작하는 광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기 청정기, 환기시스템, 의류건조기, 병해충 예방시스템, 탈취기 등을 만들어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광주 가전산업의 노하우와 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산업체질 개선에 나선 광주시의 물모델은 날개 없는 선풍기, 필터 없는 청소기 등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영국의 이슨사 등이다. 세계 산업용 청소기 시장의 60%를 지배하고 있는 독일의 카처사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소형살균청소기, 스타청소기 등으로 지난 2014년 2조8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스마트 에어 가전 산업 육성사업예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광주의 산업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광산 을) 국회의원은 이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후속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정례적인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방안들을 적극 반영하고 수출 가능한 기술지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컨설팅지원, 스마트 공장시스템 구축 등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이 이르면 이달부터 패밀리 허브 냉장고와 무풍 에어컨 등 신규 제품을 본격 생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최근 생산이 결정된 프리미엄급 첨단 가전제품이다. 제품 생산에 따른 생산라인 추가 설비나 인력 증원은 없던 기존 생산라인과 인력이 담당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서 만든 6m 풍선아트 ‘평화의 소녀상’



광주에서 활동하는 설치 미술 작가 이성웅씨가 제작한 6m 높이의 대형 풍선아트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 소녀상은 오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광장에서 열리는 ‘위안부 굴욕 합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는 시민문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며 이후 전국을 순회한 뒤 오는 3월 1일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산’ 안철수-‘광주’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체제 출범

오늘 대전서 창당대회…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한길

원내교섭단체 설 전 구성될 듯

국민의당이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투톱 체제로 출범하며 김한길 의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관련기사 3면>

‘부산의 안철수-광주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는 영호남 통합의 상징성과 혁신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막판 난항을 겪었던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설 명절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당이 창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율 하락세의 어려움을 뚫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원식 대변인이 밝혔다. 4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은 2일 대전 창당대회 직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외부 인사까지 포함하는 인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고위가 구성되면 선대위원회도 구성되며,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한길 의원이 맡고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된다.

부산 출신의 안철수 의원과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 공동대표로 추대됨에 따라 영호남 통합의

상징성과 함께 혁신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막판 난항을 겪었던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설 명절 이전에 제3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창당대회까지는 어렵겠지만 설 명절 이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호남이 아닌 수도권 의원들이 합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로 상징되는 창당대회의 컨벤션 효과와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정당 지지율 등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보다 구체적인 혁신공천 물줄기를 제시하는 한편 참신한 인재 영입 등을 통해 호남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를 다시 넓히는 한편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추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판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민심은 총선 직전 거대한 태풍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혁신의 비전 마련에 성공한다면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구인 넘쳐도 소규모업체·건설 생산직은 인력 부족

광주·전남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

광주·전남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고용노동청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광주·전남 지역 구인인원은 모두 4만3462명, 채용인원은 3만9294명으로 기업은 4168명(광주 1857명·전남 2311명)을 뽑지 못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29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광주의 구인인원은 2만2624명, 채용인원은 2만7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1174명), 7.9%(1518명) 증가했다. 미충원 인원은 18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각각 2만838명, 1만85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8%, 19.7% 감소했고, 미충원인원은 2311명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충원 사유로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업장이 광주는 23.9%, 전남은 22.6%를 차지했다. 이어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때문’이라고 밝힌 사업장도 각각 17.7%, 24.1%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전남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생산직종의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의 미래, 자동차 산업 벨리 ▶18면

송영한·김효주 남·여 골프 코리아 데이 ▶20면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미법 같은 만남

HERA

HERA OIL SERUM MAGIC FORMULA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